

## 오피니언

##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성 바로알기

호남 문화

법과 질서



양동옥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 받는 날, 연인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날, 여성들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 2월 14일. 언제부터 그런 기념일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해마다 2월 14일이 다가오면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라는 기념일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이 이상야릇한 밸런타인데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밸런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이렇다.

기원전 4세기 초, 로마에는 매년 루페르쿠스(Lupercus) 신을 기리는 투페르칼리아(Lupercalia)라는 잔치가 있었다. 다산과 번성, 건강을 기원하는 이 잔치는 불이 되어 새들이 교미를 시작하는 시기인 2월 15일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로마의 젊은 남녀는 엄격하게 따로 생활하여 함께 어울릴 수 없었지만, 잔치 기간에는 노래와 춤, 그리고 온갖 놀이를 이성과 즐길 수 있었다.

전야제 또한 삼매하게 개최되었는데, 젊은 남녀의 관심은 온통 짹짓기 행사에

쏠려 있었다. 전야제에 참가한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쪽지를 큰 황아리에 담아 놓는다. 그러면 젊은 남성들이 나타나 황아리 속에 들어있는 쪽지를 하나씩 뽑아 간다. 이름이 뽑힌 여성은 잔치 동안 그 남성의 연인이 되어 잔치를 즐기는데, 이들은 실제로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편, 전쟁을 즐기던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 2세는 군대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황제는 남성들에게 입대하고자 요구했지만, 젊은이들은 이를 꺼렸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 가족이나 연인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며, 사랑하는 연인을 고향에 남겨둔 병사는 의욕이 떨어져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황제는 급파야 입대를 앞둔 미혼 남성들의 결혼과 약혼을 중지시켜 버렸다.

당시 밸런타인이라는 성직자는 황제의 '결혼금지령'을 무시하고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를 몰래 결혼시켜 주었는데, 결국 이 사실이 들통이 나 참수되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처형된 날이 투페르칼리아 잔치의 전야제가 있었던 270년 2월 14일이었다.

그 후 기독교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밸런타인은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교황 젤

라시우스(Gelasius)는 투페르칼리아 잔치가 비기독교적이며 위법적이라고 생각해 496년 그 잔치를 금지해버렸다. 그 대신 밸런타인의 처형된 날, 2월 14일을 성(聖) 밸런타인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는 날로 선정했다.

밸런타인은 처형되기 전에 자신을 도와준 감독 간수의 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글 끝에 '당신의 밸런타인으로부터 (from your Valentine)'라는 구절을 썼다고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밸런타인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인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서 자신의 연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나의 밸런타인'이 되어주오(Be my Valentine!)라는 구절을 사용했다고 한다.

밸런타인데이에 예정의 표시로 작은 선물과 정성들여 손수 만들었던 카드를 보내는 풍습은 14세기에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그러한 풍습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상업적으로 인쇄된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달콤한 사랑을 상징하는 초콜릿이 유행하게 된 것은

1950~60년대 일본 제과업체의 상술 때 문이었다. 여성은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문화권의 밸런타인데이는 일상적 상업주의 기념일이 정착된 것이다.

상인들의 상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White day)'로, 한술 더 떠 매월 14일을 'O-데이'로 이를 짓고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 받도록 부추긴다.

선물과 꽃, 초콜릿은 바로 상인들의 상술에 불과하다. 밸런타인데이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꽃 선물이나 초콜릿이 아니어도 된다. 그저 진심이 담긴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쉴 새 없이 팔려나가는 초콜릿을 보며 밸런타인데이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너무 상상화되거나 걱정도 되지만 본래의 밸런타인데이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살린다면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풍만한 깊은 맛을 내는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다.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중고칼럼

## 바울이 모든 기독권을 버린 이유



이원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가문이나 학문, 명예, 출세, 부귀영화를 위해 날마다 열심히 일한다.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다. 극히 드물게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것을 찾았을 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최고의 값진 진주를

사려고 온 세상을 찾아다니는 진주장사와 같다 할 수 있다. 진주를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정보와 수고가 따른다. 발견했다고 하자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에 있겠느냐? 아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진주를 손에 넣은 것이다. 당연한 일이 아닌가?

역사 아래 최고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으로서 추구할 만한 것은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었다.

출신으로는 당대 최고의 가문인 이스라엘족속이었고 정통과 베냐민의 지파였으며 히브리인종의 히브리인이요, 법으로는 율법주의자요, 형식과 의식에는 바리새인이며 학문으로는 최고의 지성인 가밀리엘의 문하생이었으며 열심히 하려는 감히 그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 버렸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단을 내리게 했을까?

그것은 가장 값진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가 찾은 최고의 값진 진주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고상한 진리를 발견했던 것. 진리는 하나뿐. 최고의 것은 똑같은 것이 두 개일 수 없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해 버린 사람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서 그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그를 얻기 위해서 그의 모든 기독권과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들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었다. 심지어 그에게 미처 모든 삶을 그에게 쏟아 버렸다.

그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윤동 그분뿐이었다. 살아도 그를 위하여 죽어도 그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오직 그분을 위하여 그의 존재 자체가 그분 때문이었기에 그가 사는 자체가 자신이 아니라 그 속에 그분이 산다고 공연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빌어버림을 치고 있는가? 가장 고상한 진리를 우리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귀한 삶을 쏟아보자.

〈광주 무등교회 목사〉

## 기고

## 장애인 성문제, 적극 대책 필요하다



노미향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성폭력사건이 보도되면서 또다시 지역장애인 사회가 떠들썩하다.

성폭력이란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비장애인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피해로만 대부분 여기고 있는데 이번 생활시설의 실태는 너무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각히 충격적이어야 할 수 있다.

상담기관에 의하면 교사가 입소장애인을 성폭행한 것만이 아닌 경증장애인인 중증장애인에게, 나이가 많은 대상자가 어린대상자에게, 또 동성의 대상자끼리, 취침시, 화장실에서, 목욕탕에서 여러 형태로 위협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어릴 때 당했던 나

이 어린 대상자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되어 악한 대상에게 가해를 하고, 문제의 대부분이 동성이고 동성끼리의 성행위로 인한 2차적인 감염의 위험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전에 거주했던 시설에서 배웠던 것을 다른 시설에 옮겨와 행한다는 증언에 비추어보면 비단 거론되고 있는 시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당황스럽기조차 하였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에 관한 문제는 금기시하거나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초등학교 4~5학년이면 이미 아동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성세대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자아가 발달하지 않는 저지적장애인의 성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임에는 틀림없다.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이기에 그저 모른 체 하거나 참기만을 바라는 소극적

인 자세는 결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시설에서는 당사자 성교육과 상담, 의료적인 검사 등을 규칙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비슷한 연령끼리 재우고, 개별침구사용, 개인공간보장, 야간 생활지도사증원, 서포터즈교육, 흥미있는 여가활동, 다양한 운동프로그램개발, 적극적인 사회활동 등 다각도의 방안이 구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공적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또 대부분의 복지사가 근무기피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력을 기워주고 야간에는 더 많은 생활지도사를 배치하여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져야 하겠다.

시설거주인의 70%~80%가 지적장애인이며 아직까지 지적장애인의 대부분은 부모 사후 시설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탈시설화만 주장할 것이다.

나라, 시설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을 보장해 준다거나(oneroom system), 결혼하여 살 수 있는 가족형, 그룹형 형태 등 다양한 시설 형태를 구성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거주인에게도 활동보조인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설 내에서도 최대한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사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사업적인 의도로 접근하여 법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거나, 인권침해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발견될 시설은 차단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인에게 활동보조인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설 내에서도 최대한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다.

〈광주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사무국장〉

## 학교폭력,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인정사정없이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까지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담임선생님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금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우리를 안타깝

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장기간 지속적 대인간 폭력으로 복합적 외상경험이나 장기간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적 자아개념, 정체성자하, 자기중심감 저하, 자기지각 부정적 무능력, 무기력, 죄책감, 수치심, 자기비판으로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 기

성세대가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찰과 학교 그리고 부모가 합심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사람으로 보살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를 하여야 하고 이상한 징후를 발견할 때 즉시 학교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피해신고 전에 1:1상담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여 사소한 유형의 폭력이라도 사안이 심각하기 전에 학교·학부모·경찰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6일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증 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피해학생이 없도록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겠다.

▲이용현·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설

## 지역 국회의원 의정 성적표 '부정적'이라니

18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이 전체적으로 '속 빙 강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때보다 대표발의 건수는 급증한 반면 가결 비율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법안발의 건수가 늘고 출석률이 높아진 것은 18대 총선 공천심사 때부터 법안건수와 본회의 출석률을 등 의정활동 점수를 반영하면서 의원들이 입법 성적을 의식해 질 보다는 양에 치중한 때문이다. 대부분 '실적쌓기용'이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의원들의 성적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협의의원의 법안건수와 출석률을 공천심사에 반영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원안 가결 처리비율과 법안 표결 참여 여부 등 실질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권자들도 4월 총선에서 이를 근거로 심판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타당성 있다

광주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휴업토록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영세상권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추진 중이다.

현재 27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대형마트·SSM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광주 5개 기초의회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잠식으로 영세상권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휴업일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반발과 소비자의 이용 시간 대를 감안, 매월 2·4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한 전주시와 달리 휴업일은 업체 자율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은 진정한 상생의지로 휴무일을 늘린 만큼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영업품목 제한을 통해 쓰풀이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 역시 시 개정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1592년 8월 14일 사포(司圃) 한호가 평안남도 성천에 있는 분조(分朝·임진왜란 때 임시로 세운 조정